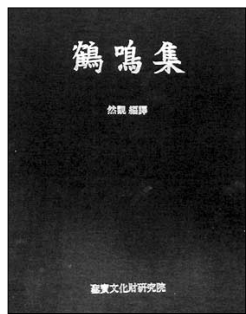


# 학 울음소리 선판(禪板) 두드리니...



학명집  
연관 스님 편역  
(사)성보문화재단연구원

## 불교개혁 실천했던 학명 스님 사상 조명 법어·문답·전법계 등과 행장 담아

“우리들이 머리를 깎고 먹물웃을 입은 본의는 번뇌를 끊고 생사를 여의며 불법을 배우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거늘, 이 문안에 들어와 본분사는 확연히 알지 못하고 이름만 승려이고 마음은 속인으로 행동하니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면목인가?”

“독살이하는 승려에게 환한(불교, 62호, 1929년 8월호)이라는 글에서 백학명 스님(1867~1929)은 불교의 모순을 개탄하고 개혁할 방책을 강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명 스님은 승려에 대한 정의를 ‘출가위법(出家爲法) 하는자’로 보고, 우선 승려는 일대사 인연으로 오직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우칠 뿐이라고 단언했다. 때문에 이를 이행치 않는 스님은 ‘외도’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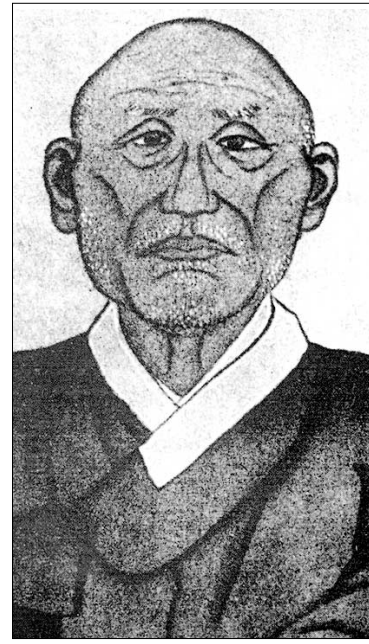
고난의 근대기에 선농불교를 통해 불교개혁을 실천했던 선교 겸비의 선지식으로 알려진 학명 대선사, 행적과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동안 잊혀진 스님으로 남아 있었던 학명 스님의 행적과 사상, 선농불교를 알려주는 기록 등 행적을 접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실사사 연관 스님이 편역하고 (사)성보문화재단연구원이 발간한 <학명집>은 계종(啓宗) 백학명 스님의 상당법(上堂法語) 4편, 문답(問答)기록 3편, 전법계(傳法偈) 5편, 왕생가동 가송(歌頌) 18

편, 달마예찬등 찬(讚) 10편, 원불교 박종빈 교조에게 보내는 편지등 서간(書簡) 5편, 내장선원 규칙등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는 연관 스님의 ‘학명 대종사 행장’, 前 조계종 종정 동산 스님의 ‘대원적 학명선사 열반’, 前 서래선원 조실 해안 스님의 ‘웅맹정진’, 이능화(불교사학자)의 ‘백학명 대선사를 추모함’, 석정 스님의 ‘백학명 선사의 달마도’,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백학명 선사의 선농불교’, 김종진 동국대 강사의 ‘학명선사의 불교가사’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백학명 대선사 연보, 내장사 학명선사 사리탐명, 통도사 성보박물관 범하 스님의 후기 등이 들어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스님은 내조사, 월명암, 백양사를 전전하며 선종을 일으키고, 내장사에서 반농반선을 주창하시어 일일부작(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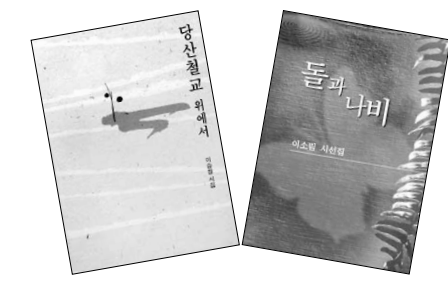


근대 대표적 선지식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학명 스님 진영.

不作) 일일부작(一日不食)을 몸소 실천하셨다”며 “계종(啓宗)의 학울음 소리(鶴鳴, 학명을 만인이 들을 수 있도록 鶴鳴, 학명을 만인이 들을 수 있도록 선판(禪板)을 두드리려나니 이에 산승이 문자로 화답함이라”고 썼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당산철교 위에서’ ‘돌과 나비’



시인 이승철(48) 씨의 신작 시집 <당산철교 위에서>(솔, 6500원)와 소림 스님의 시선집 <돌과 나비>(한누리미디어, 7000원)가 발간됐다.

이승철 시인이 5년만에 발간한 3번째 시집 <당산철교 위에서>는 잔잔한 일상에서 길어올린 사연과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 현장에 대한 깃발 서린 증언등이 응축된 시어로 실려있다.

특히 시집 마지막 43번째 시인 ‘내 청춘의 비망록’은 17쪽이나 되는 장편의 시로 치열하게 살아온 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소림 스님(광양 서산사 주지)의 시선집 <돌과 나비>는 그동안 스님이 발표하신 시 300편에서 100여편을 고른 것. 스님은 1973년부터 2004년까지 5권의 시집을 발간해왔다.

##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2



**3분 테일즈-이야기로 깨닫는 기쁨**  
신선혜 옮김 | 한언커뮤니티 | 9800원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던 비구니가 흐드러진 햇빛이 달빛을 가득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마을사람들에게 값진 자연의 선물을 쥐고 고맙다고 머리숙여 인사하는 일화에서 숲에 취해 자신이 세계최고라고 거들먹 거리는 풍파리 이야기까지.

<3분 테일즈-이야기로 깨닫는 기쁨>에 소개된 32편의 이야기들은 3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짧게 기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절제와 겸손, 정직과 덕목을 깨칠 수 있도록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정원규 옮김 | 불광출판부 | 1만원

바쁜 생활이 계속되다보니 초발심을 일으킬 때와 다르게 인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어간다. 이런때 중국 오대산에 은거하며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묘법 스님의 인과 이야기는 처음 흥미를 느끼다가 뒤에에는 망치로 얻어맞는듯한 충격을 느끼게 해준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에서 묘법 스님은 인과법을 깨닫고 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사실적으로 얘기한다. 즉 “수행인에게는 조그만 잘못도 우리 몸의 기를 막히게 하여 불행하게 하며, 고기를 먹으면서 염불하면 백년을



## ‘중관-유식’ 대립에서 통합으로

대승불교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려면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인도 중국 한국 티베트 불교에 이르기까지 이 양대산맥을 넘지 않고서는 대승불교의 어떠한 사상에도 정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관과 유식>은 일본 경도대학 교수를 역임한 나가오 가진이 40여년간 연구해온 성과들을 총 정리해 엮은 책이다. 나가오 가진은 통상적으로 중관과 유식을 무와 유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를 일신하고 중관과 유식을 융합의 견지에서 통합하려고 시도해온 학자로 이름나 있다.

책을 옮긴 김수아(법기회 투병대학) 연구원은 “25편의 논문은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와 사상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관과 유식  
김수아 옮김  
동국대출판부  
2만6000원

## 새로운 책

■ 무엇이 보이고(강병호, 은누리, 8000원) = 만화가 강병호씨가 ‘여승불교’에 3년간 연재한 만화 ‘산중방담’을 묶었다. 산중방담에는 부처님을 비롯해 옛 성현의 말씀을 알기쉽게 만화로 그렸다. 이 만화의 주인공 목공 스님은 이세상의 어느 것 하나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과 깨달음이 진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 깨달음의 전기(연정렬, 대한불교사상연구원, 비매품) = 한성대 연정렬 명예교수가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쉽고 평이하게 소개하기 위해 펴낸 소책자. 1부 경전과 성전에는 대승불교사상, 수행의 언행록, 원효의 유신안락도, 오늘의 시각에서본 유식론, 제가사 수행법, 토인비의 종교관등이 실려있다. 이밖에도 2부 소논문, 3부 유가의 경전, 4부 도가와 불교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21세기 부다의 메세지 현지공헌지사, 자재만현스님, 1만5000원
-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철우스님, 8500원
- 섬섬하게 그려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도솔, 능형스님, 9500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해국스님, 3500원
-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이지, 월호스님, 98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 아시아서 전해지는 지혜의 샘

특하고 있다.

이 책에는 겨자씨를 구하려는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은 기사 고타미, 부처님 전생담인 자타카, 무례한 사무라이를 제도한 일본 하쿠인 스님, 글을 모르지만 마당을 쓸면서 깨달음을 얻은 춘다카등 인도와 중국, 티베트, 일본등 아시아 각국에 전해지는 불교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일방적인 지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홀로 생각을 정리하며 너털너털해진 마음과 머리를 추스려야 할때도 있다. 힘들고 지친마음에 고요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오랜세월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향기로운 불교이야기이다. 책을 읽으며 순간의 명상에 잠겨볼 것도 권한다.

## 인과 깨달으면 고통 사라진다

염불해도 부처님과 상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태아가 지장경 등기를 좋아하니 임신하면 지장경 독송을 하라는 것과 방생으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등 인과의 도리를 이해하면 불기사의한 일들이 해결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스님은 “불법을 받아들여 자기 과거의 모든 악업을 진정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하늘 가득한 큰 죄라도 소멸 될 것”이라는 불교적 해답을 준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인과’에 주목해 보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과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행해야 할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사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구선 지음  
312쪽 / 값 18,000원

### 見性を 넘어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점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아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종영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신분) :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와사 수련회 :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역결핵환과 청신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 여덟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

선정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중심의 일 心 - 無心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識 - 無念	인과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임이 없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일체를 이루었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인지를 이룬다 (수의식의 발현)	존재목적을 설정하고 이치를 따라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위각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위각 (미세발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돈독한 미세적 유위각	일시적 무위각
자기제도	장부순화 (공수연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취주순화 (취주법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김비배 순화 (김비배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위장 소장 대장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배순화, 체약
교류성의 확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계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조화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현	있는 그대로 본다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세계뿐만이 아니라 무생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식의 틀 깨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품고서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중극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래서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매의 증득

※ 이하 공무번치정(空無邊處定), 식무번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非非非處定), 상수멸정(想受滅定)에 대해서는 이름다른 세상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하십시오.

##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순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